

농림축산식품부

폭넓은 현장 소통 행보
실행·신뢰·배려의 ABC농정 실천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요 농정신문고’, ‘금요 브라운백 미팅’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면서 실행·신뢰·배려의 ABC(Action·Believe·Care) 실천하고 있다.

‘금요 농정신문고’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장관이 직접 듣고 답하는 자리로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금요 브라운백 미팅’은 정부 세종시 이전으로 자칫 외부 의견 수렴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와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는 김재수 장관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이러한 김재수 장관만의 현장소통 방식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금요 농정신문고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및 정부비축비 구매정책을 개선하고, 농산물 가공품 포장재 재고 사용기간 연장 등 현장 중심의 정책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키로 했다. 한편, ‘금요 농정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이번 ‘농정신문고’에서는 ‘시농가에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확대’ 등 5건에 대하여 민원인과 소통할 예정이다.

김재수 장관은 “농식품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농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고객전문가들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농식품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농정신문고와 브라운백미팅을 현장중심의 새로운 정책개선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야생조류 이동시물레이션 공개
HPAI 예찰·방역에 효과적 활용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금사육 농가와 가축방역기관이 HPAI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

치추적기를 부착해 획득한 철새 이동정보(철새이동경로, mBIRD)를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mBIRD’는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야생조류 좌표를 시물레이션으로 구현하여 국내외에서 야생조류가 이동하는 경로를 지도에 동영상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볼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검역본부는 HPAI 예찰을 위한 철새의 이동경로 연구용역을 통하여 2013년부터 국내외 야생조류에 위치추적기(WT-300)를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2014년부터 부착한 결과를 공개했다.

홈페이지에서는 연도별(2014년, 2015년, 2016년)로 야생조류의 이동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시기별, 지역별, 종별 북상·남하시기, 소하천과 농경지 내 이동상황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시각화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번 야생조류 이동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됨에 따라 검역본부, 가축방역관계자, 가금사육농가 등이 철새에 대한 HPAI 방역을 강화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일반 국민과 관련 연구자들이 가지는 야생조류 생태에 대한 궁금증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는 “야생조류 이동현황을 매월 업데이트할 계획이며,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야생조류 이동연구 등 가금사육농가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HPAI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역본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8종 재평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에는 기능성 원료 28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되어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뉘어 실시된다.

재평가 방법은 재평가 전문기관이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 사항의 유지, 변경 또는 취소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업계에도 재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참고로 '17년 재평가 계획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식량농업유전자원위 정기총회에 의장국으로 참여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FAO) 본부에서 열린 제16차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정기총회에 의장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FAO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는 식량과 농업에 관한 식물, 동물 및 무척추동물 등의 유전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인류 기아해결과 빈곤탈출을 위한 범지구적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회의다. 현재 176나라가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열린 제15차 정기총회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창연 박사가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중요성'과 '동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세계행동계획 개정'에 관한 2개의 결의문이 채택돼 상정됐다.

또한 회원나라의 의견이 대립된 '농업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법체계구축', '세계 식량농업 생물다양성 현황보고서' 및 위원회의 '중장기사업과 전략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이 별도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최종 보고서로 채택토록 했다.

의장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창연 박사는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수확은 2015년 국제연합에서 발표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위원회와 회원나라의 전략계획을 수립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글로벌농업 청년리더 38명 선발
KOPIA센터로 파견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하 KOPIA)의 하나로 2017년 상반기에 선발한 연구원 및 연수생 38명을 KOPIA센터로 2월 1일 파견했다. 이는 정부의 청년 해외진출 사업의 하나로, 해마다 100명 내외로 농업 분야 인재를 선발해 20개 나라에 설치된 KOPIA센터에 파견하고 있다.

KOPIA센터에 파견된 연구원 및 연수생들은 농촌진흥청이 현지 농업 연구 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현장에 직접 참여하며, 국제적인 농업 환경을 경험하며 다양한 농업 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

연구원 및 연수생들은 해외실습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실습 등 전공 능력을 키우고, 주재국의 농산업 현황을 분석하며 글로벌 농업 환경을 경험한다. 또한, 영어, 스페인어, 불어 등 국제공용어 및 현지어 강습을 받으며 글로벌 청년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조경래 과장은 “글로벌 농업 인재 양성 사업은 지난 9년 동안 청년들에게 해외 진출 기회 제공 등 양적 성장을 이뤘으며, 앞으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다변화 및 전문화를 통해 질적 성장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통합기관 공식 출범
“안전먹거리 공급…식품안전 선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이원화돼 인증·관리돼 왔던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와 함께 HACCP 통합기관으로 새로이 출범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초대 원장에 장기윤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취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충북 C&V센터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 초대 원장에 대한 취임식을 가졌다.

장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식품안전을 선도하는 브레인으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만큼은 믿고 맘 편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원 1차 신규교육
전문화과정 추가 전문성 확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중,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도축검사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 안성 농협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2017년 도축 검사원 신규직원(39명)을 대상으로 신규교육(1차)을 2월 13~24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자 교육은 도축검사원의 역량을 개발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했으며, 포유·가금류 해부학, 병리학 등 전문화 과정을 추가해 전문성도 확대했다.

또한 위생방역본부 임경중 본부장은 전국에 있는 120개소의 도축장에 도축 검사원 336명을 현장 배치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소·돼지 포유류 17,294천두를 검사해 4,872천건, 가금류 10억6천6백만수를 검사해 49,282천건의 식육에 대한 이상보고를 했으며, 도축되는 가축에 대한 전염병 검색은 물론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

합천군과 축산환경관리
업무협약 체결



축산환경관리원과 합천군, 합천축산업협동조합, 한우·한돈·양계협회 지부와 축산악취제어 등 행복한 합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합천군 대표산업의 축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축을 이루고 있지만 현재 축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악취문제 등 축산환경 개선 없이는 축산경영이 어렵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축산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유도, 컨설팅 지원 등 공동 노력할 것을 협약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공동 노력, 축산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 및 지원하며, 악취저감, 분뇨자원화 등 축산 혁신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제고에 앞장서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합천군은 향후 행정, 축산단체 간 실무추진단을 편성해 축산환경관리 대상지를 추천·선정을 완료해 축산환경분야 최고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에 통보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계획이다.